여성 심질환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방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심질환은 남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 심질환의 인지도는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인지는 질병의 예방과 생존율 향상의 첫 번째 단계이므로 여성 심질환의 위험요인,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을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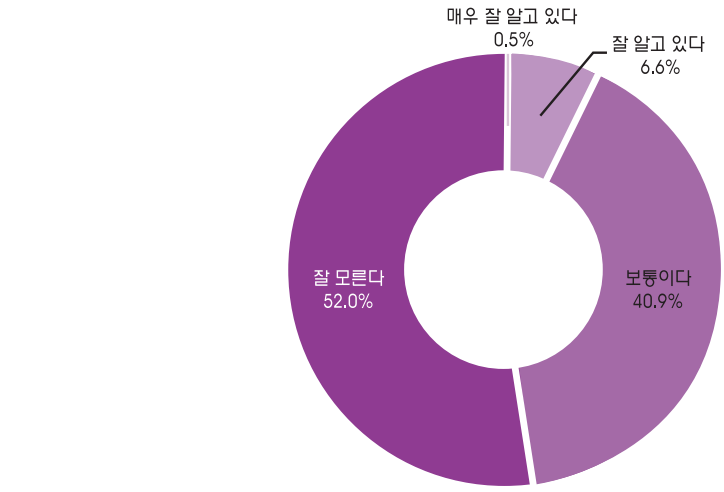
김 현 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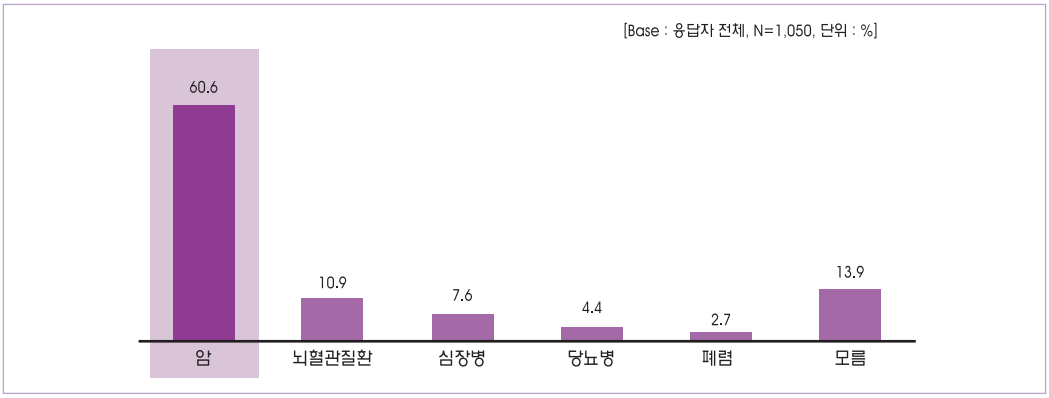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은 한국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발전하면서 남성 사망률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 사망률은 그렇지 못하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계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질환에 대한 위험은 남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심질환에 대한 위험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심장병 위험인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관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거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이러한 여성 심질환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Go Red for Women" 캠페인을 통한 여성 심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면서, 미국 여성의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여성의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심질환의 인지도 현황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는 우리나라 여성 심질환의 인지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 심질환의 예방 관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림 1> 여성 심질환 인지도
질문 : 여성의 심장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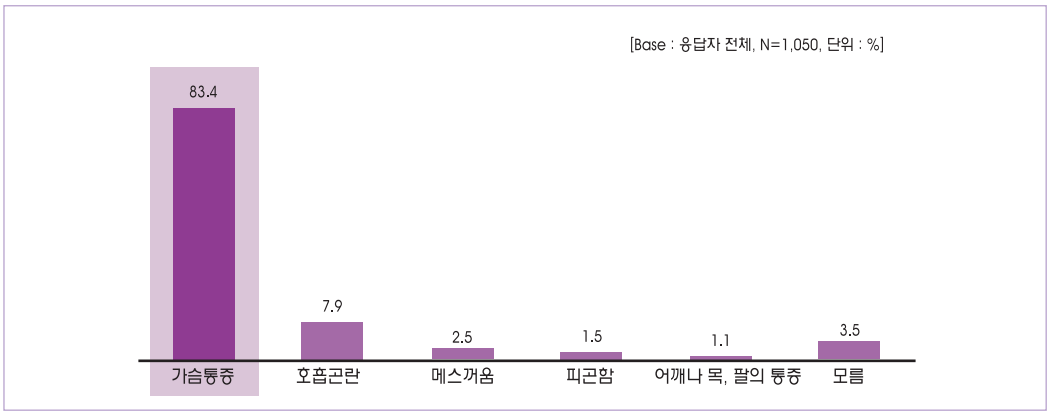
<그림 2> 여성 사망원인
질문 : 여성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령별, 지역별을 기준으로 층화계통 추출된 표본을 기준으로 총 1,050명의 40세 이상 여성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심질환의 인지도

설문에 참여한 절반(52%)의 여성이 심질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그림 1). 세부 분석 결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도 높았다. 또한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은 암이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뇌혈관질환과 심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는 매우 적었다(그림 2).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심질환이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으



<그림 3> 협심증 의심 증상
질문 :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나요?

로 암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서구 생활방식을 따르는 변화로 인하여 미국의 주요 사망원인의 경향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6%의 여성만이 심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은 값이다.

2. 여성 심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

설문에 참여한 3분의 2(62.8%)에 해당하는 여성이 심질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흔한 심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61.5%)였다. 친구, 친척, 병원 직원을 통해서 접하거나, 인터넷 및 YouTube도 적지만 포함되었다.

3. 여성 심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

여성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에 비하여 심질환의 증상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았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전형적인 협심증성 흉통을 협심증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흉통은 협심증이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3). 특히, 인지도가 높은 그룹의 여성일수록 지식 정도도 높았다.

증상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았던 반면, 심장마비 징후를 보이는 심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올바른 처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 49.6%만이 119에 연락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33%만이 병원에 바로 간다고 응답을 하여, 심질환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증상을 알고 있어도 올바른 처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 즉, 여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 심질환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방안

질병에 대한 인지는 질병의 예방과 생존율 향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여성 심질환의 위험요인,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성의 심질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전달, 소셜미디어의 활용,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열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여성이 심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고 행동 교정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여성, 농촌에 거주, 학력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은 여성은 여성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

가 낮은 고위험군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와 같은 단체가 주관하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 심질환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운동과 식사요법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 관련 주제부터 시작하여 교육 기회와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보를 얻는 매체를 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계획해야 하며, 특히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과 YouTube를 이용한 새로운 접근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여성 심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여성이 여성의 심질환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으며, 정보를 얻는 경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여성 심질환을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